

자동차산업의 중국현지경영 상황점검 및 북경모터쇼 관람을 통한 시장트렌트 파악

- 조철 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□ 출장자 : 조철 연구위원(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)

□ 출장 일시

- 2012년 4월 25일 ~ 28일(3박 4일)

□ 출장지역 : 중국 북경, 상해

□ 방문처

○ 북경모터쇼, 현대모비스 북경공장, 북경현대 공장, 현대자동차 상해 글로벌지원센터

□ 북경모터쇼 개황

○ '혁신을 통한 도약'을 주제로 열린 이번 모터쇼에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총 1100여대의 신차를 내놓았는데, 이중 세계 첫 공개를 의미하는 '월드 프리미어'만 120여종

- 아시아 최대 규모로 14개국 2,100여개 업체들이 참가
- 중국 자동차소비자의 과시성향을 반영하여 주요 모터쇼의 추세인 '다운사이징(엔진의 크기를 줄인 채 성능을 유지하는 것)'과 정 반대 양상
 - 기존 차량을 길게 잡아 늘린 롱(Long) 버전 모델을 내놓는 독일 고급차 업체들의 신차 발표
 - 큰 차로 경쟁하려는 경향은 한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몸집을 키운 아반떼, 에쿠스 리무진, 제네시스 쿠페, SM7, 체어맨 2.8 등이 그 대표적인 예
- 예년에 비해 전기차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점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다소 위축
 - 이는 지속적으로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판매가 부진한 현실을 반영

□ 북경현대 및 현대모비스 북경공장 방문

- 현대모비스 북경공장의 근로조건
 - 주야간 2교대로 보통 기본 8시간에 1시간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월 3천 위안 정도 임금
- 북경현대자동차의 경영상황 및 향후 전략
 - 현대자동차는 지난 10년 품질 중심에서 향후 브랜드 중심으로 이미지, 고급 브랜드화 중시
 - 현재 60만대 생산능력으로 70만대 이상 생산, 2012년 30만대 생산능력의 하반기 3공장 가동
 - 대리점이 726개에 달하며, 부품협력사는 163개인데 동반진출한 한국기업이

93개사, 중국 현지기업이 23개사, 기타 외국기업이 42개

- 동반진출 한국기업으로부터 87%를 구매하고 있고, 중국 현지화율은 91%에 달함.
- 중국 소비자는 크고 화려한 외관을 좋아하여 크롬도금 및 썬루프 등 채용
- 최근 YF 쏘나타모델이 중국 시장에 판매 확대, 50%이 검정색이며, 대부분 가솔린 엔진
- 북경모터쇼에 중국 독자모델 랑동 엘란트라 출품(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와 베이징현대기술연구수의 합작 현지화 모델)

○ 북경현대자동차의 비용 및 노동여건

- 외관은 대부분 한국산 및 일부 일본산
- 금형교체시간 2공장 6분, 3공장 3분, 4개 차종 동시 작업 등 자동화수준이 매우 높는데, VW이나 GM보다 높은 수준
-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은 25살이며, 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.5%에 불과하고, 기본급 3,800위안이고, 성과급을 포함하면 5,600위안, 최근 3년간 10% 이상 상승
- 87.4%의 편성효율을 보이고 있으며, 전환배치도 용이, 다른 공장에 비해 모듈화가 높은 수준
- 11시간+11시간 주야간 2교대, 토요일 특근, 일요일 휴식 체제, 6명당 1명씩 대체인력 확보
- 종합상황실에서 카메라로 문제발생시 실시간 조치

□ 현대자동차글로벌지원센터

○ 주요기능

- 자동차부품업체의 40%가 화동지역에 밀집
- 신차적합사양 개발 협업(차량 및 부품 현지화)
- 중국 경쟁차 벤치마킹 및 협력업체 제안
- 원소재의 현지화, 품질 확보된 업체선정 및 소재품질 확인 후 적용, 협력사 품질 및 공정점검
- 중장기 중국 상품전략 수립, 신에너지자동차 개발 지원

○ 중국 품질센터

- 다양한 환경특성이 공존하는 중국 지역에 맞는 품질관리 체시(사막, 건조, 고원, 저온, 고온 등)
- 품질전문가를 전진 배치하여 필드문제 신속개선 및 중국 고객요구 품질 확보, 시장품질, 신차품질, 부품품질 등에서 중국 최상위 품질 달성 목표

○ 중국 토종부품업체 평가

-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아직 부족하여 채택에 있어 제한적